



## 전환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No Time to Lose: A Quest for Immediate Action for Planetary Crisis

2021년 9월 17일(금) - 12월 17일(금)

주 최 경희학원  
주 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대학교의료원

## 취지

### 전환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재난이 지구사회를 휩쓸고 있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바이러스 창궐, 생명 위기,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등 인류가 마주한 사회-생태적(socio-ecological) 위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과 도전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제 인류는 지구사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 문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전환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일까?

경희학원에서 개최하는 2021년 Peace BAR Festival (PBF)에서는 지구적 위기의식 속에서 전환문명의 방향을 탐색한다. 현대문명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의식, 지식, 정치의 위기로 읽고 전환을 향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현 사회의 총체적 위기 타개의 길을 전환문명이라는 일관되고 통합된 서사 속에서 재설계하고자 한다.

첫째, 의식의 전환.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각자의 의식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성장과 소비 신화에 갇힌 문명의 한계를 타파하고 인간의 창조성을 회복하는 의식전환 프로그램을 고민한다.

둘째, 지식의 전환. 인류문명을 형성해온 근대 지식 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중심의 지식 생산 방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지구 지식의 생태적 전환을 논한다. 영토와 경계에 갇힌 지식을 넘어 우주를 포괄하는 행성적 전환 지식을 제안한다.

셋째, 정치의 전환. 지구 정치를 위한 세계시민적 실천과 거버넌스를 모색한다. 기후재앙 시나리오를 피하고 지구문명을 지키기 위해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어야 한다. 지구생태계를 포괄하는 행성적 차원의 지구공동체 구성을 요청한다.

경희학원은 제1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부터 지금까지 매년 PBF를 개최해왔다. 세계평화의 날 40주년이 되는 올해는 대학, 사이버대학, 의료기관 내 미래문명원을 구축하고 이를 포괄하는 경희학원 '미원 평화학술원' 체제가 출범했다. 미원평화학술원은 글로벌·공공협력 의제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범경희 미래평화사업 플랫폼으로서 더 나은 지구문명 전환설계를 위한 여정을 계속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번 PBF는 중심 의제 "전환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까지 대담 시리즈를 진행한다. 인류문명을 지구적 재앙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사회-생태학적 전환문명을 제안하고 행성적 공동의 삶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미래사회, 미래세대의 앞날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

## 세계평화의 날 제정 배경

세계평화의 날과 해는 1981년 유엔이 제정하면서 정례화됐다.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IAUP) 제6차 총회에서 경희의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유엔에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IAUP는 이 같은 내용의 코스타리카 결의문을 채택해 유엔에 전달했고, 유엔은 그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유엔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과 해(International Day of Peace, International Year of Peace)를 제정했다.

당시 유엔총회 결의문(Resolution 36/67)에는 세계평화의 날은 “모든 국가와 시민이 평화의 이상(理想)을 기념하고, 고양하고자” 제정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 산하기관과 기구, 지역기구, NGO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엔과의 협력하에 특히 교육적 수단을 통해 세계평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권유한다고 쓰여 있다. 유엔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 (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했다.

냉전체제 완화가 인류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IAUP의 생각은 시의적절했다.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안할 무렵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던 동·서 양 진영은 세계평화의 해가 공표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1986년 1월 1일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신년 평화 메시지(New Year's Messages of President Reagan and General Secretary Gorbachev, January 1, 1986)를 교환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양국이 추진해오던 군축회담도 진행하면서 인류는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핵무기 감축안이 마련되고 지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냉전체제의 긴장이 완화됐다.

## 프로그램



**주 제** No Time to Lose: A Quest for Immediate Action for Planetary Crisis  
 전환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일 시** 2021년 9월 17일(금) - 12월 17일(금)

**주 최** 경희학원

**주 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대학교의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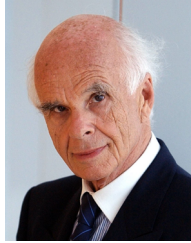
<b>세계평화의 날 기념식</b> - 9월 17일(금) 16:00-16:50	<b>개 회</b>	박영국 경희학원 사무총장
	<b>세계평화의 날 경과보고</b>	이한구 미래문명원 원장
	<b>기념사</b>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b>미래세대 목소리</b>	“우리가 살 미래”
	<b>기념시</b>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작
	<b>기조연설</b>	어빈 라즐로 부다페스트클럽 설립자 겸 회장
	<b>축하 음악</b>	“Now The Time Has Come” (Ringo Starr)

세계평화의 날 기념 대담 시리즈 <전환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b>대담 I</b> - 9월 17일(금) 17:00-18:00	영상 상영	
	주제	지구문명의 위기와 의식혁명
<b>대담 II</b> - 10월 15일(금) 10:30-11:50	주제	무한 성장 신화에 갇힌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운명과 그 전환 가능성
	패널	어빈 리즐로 부다페스트클럽 설립자 겸 회장 신종식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b>대담 III</b> - 10월 29일(금) 10:30-11:50	주제	외계 지적 생명체의 태양계 방문, 지구(인)의 정체와 운명은 다시 쓰여질 것인가?
	패널	아비 로브 하버드대학교 천문학과 Frank B. Baird Jr. 석좌교수 이형목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b>대담 IV</b> - 11월 26일(금) 16:00-17:20	주제	기후변화시대, 우리의 생존은 어떻게 가능할까
	패널	한스 요아힘 쉘른후버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설립자 겸 초대 소장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인간과학스쿨 특임교수
<b>대담의 마무리</b> - 12월 17일(금) 10:30-11:50	전환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 미래 인류사회를 향한 선언	

※ 본 행사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본교 PBF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참석자



**어빈 라즐로** Ervin László

- 프랑스 소르본대학교 철학박사
- 과학철학자, 시스템이론가, 통합이론가
- 로마클럽 공동 설립자 및 부다페스트클럽 설립자 겸 회장
- 수상 : 일본 고이평화상(2001), 아시시 만디르 평화상(2006), 룩셈부르크 평화상(2017)
- 저서 : *Reconnecting to the Source*(2020), *Upshift: Meeting the Challenge*(2021)



**폴 R. 엘리히** Paul R. Ehrlich

-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생명과학부 명예석좌교수
- 인구학자, 생물학자, 곤충학자
- 스탠퍼드대학교 중보존생물학센터 회장
- 인간성과 종다양성 확보를 위한 '인간생활권 밀레니엄연맹' 운동 주도
- 저서 : 「인구폭탄」(1968) 등 50여 권과 1,200여 종의 출판물



**아비 로브** Avi Loeb

- 
- 미국 하버드대학교 천문학과 Frank B. Baird Jr. 석좌교수(1993-), 학과장 (2011-2020)
  - 미국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 연구센터 산하 이론 및 계산 연구소 소장(2007-)
  - 미국과학한림원 물리천문위원회 위원장(2018-2021)
  - 갈릴레오 외계 인공물 탐사 프로젝트 책임자(2021-)
  - 저서 : *Extraterrestrial*(2021), *Life in the Cosmos*(2021)



**한스 요아힘 쉘른후버** Hans Joachim Schellnhuber 출처: PIK/Karkow, 2020

- 
- 독일 포츠담대학 교수
  - 대기과학자, 기후학자
  -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설립(1992) 및 초대 소장
  - 기후변화와 티핑 포인트 이론 연구
  - 수상 환경분야에서 최고 권위있는 '불보환경상' 최초 독일인 수상자(2011)
  - 저서 : 「지구시스템 분석과 제2의 코페르니쿠스 혁명」 외 250편 이상의 연구논문 발표

##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40주년을 맞은 유엔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No Time to Lose: A Quest for Immediate Action for Planetary Crisis'(전환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대회 주제로 선정한다. 국내외 지식인과 실천가들이 지구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행정적 차원의 전환문명 지식과 실천을 제안한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바이러스 창궐, 생명 위기,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등 지구적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근대적 지식 패러다임의 한계를 직시하고 의식, 지식, 일상, 정치의 전면적 변화를 촉구한다.

<b>세계평화의 날 기념식</b> - 9월 17일(금) 16:00-16:50	개 회	박영국 경희학원 사무총장
	세계평화의 날 경과보고	이한구 미래문명원 원장
	기념사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미래세대 목소리	“우리가 살 미래”
	기념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작
	기조연설	어빈 라즐로 부다페스트클럽 설립자 겸 회장
	축하 음악	“Now The Time Has Come” (Ringo Starr)



## 미래세대 목소리 “우리가 살 미래”

지구문명의 한계를 반성하고 새로운 실천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듣는다. 환경위기를 초래한 기성세대 프레임에 도전하는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를 발굴해 이들의 목소리를 지구사회에 전한다. 현재 지구문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미래세대의 생각을 들어본다.

### 기념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 낭송 정호승 시인 / 영문 번역 안선재

“끝없는 저 하늘/ 하늘 뒤에 하늘이/ 그 뒤에 또 아득한 하늘이 이어진다/  
아~ 무한한 우주의 대공간이여”

Those unending heavens,/ the heavens beyond the heavens/ and beyond them,  
further distant heavens stretching./ ah~ the infinite space of the Universe!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는 존재의 근원을 찾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문명의 의미를 통찰한다. ‘나’의 근원적 실체를 올바로 직시하는 것은 우주와 인류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우주의 기원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여행은 미래를 향한 창조와 모험의 시간 여행이다. 이러한 웅대한 메시지를 담은 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를 감상한다. 정호승 시인이 낭송하고, 안선재 교수가 번역한 영문 시를 마지막으로 넣은 영상을 소개한다.

### 세계평화의 날 기념곡 “Now The Time Has Come”

: 작곡 : Lingo Starr, Bruce Sugar

노래: Lingo Starr, Richard Page, Colin Hay and Billy Valentine (feat. Christian Collins 외 다수)

“이제 때가 됐다/ 모두를 위한 시간이 됐다/ 무기를 모두 내려놓고/ 사랑의 빛이 비추게 하라”

Now the time has come/ Time has come for everyone/  
To lay down all your guns/And let the light of love shine on and on

비틀스(Beatles)의 멤버였던 링고 스타와 그의 친구들이 부른 노래 “Now The Time Has Come”을 영상으로 만나본다. 링고 스타는 2016년 9월, 유엔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이 곡을 발표했다. 세계평화의 날 단 하루만이라도 지구 시민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전쟁과 파괴를 멈추고 평화와 사랑을 실현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 세계평화의 날 40주년 기념 대담 시리즈

### 대담 I 지구문명의 위기와 의식혁명

The Crisis of Civilization on Earth and Revolution of Consciousness

현대문명 패러다임은 지구생명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새로운 전환의 설계와 패러다임 창조가 시급하다. 세계 시민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통의 윤리와 규범이 요구된다. 이에 세계 석학과 함께 문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지구적·민주적 거버넌스 창출을 제안하는 대담 시리즈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 대담은 '의식의 전환'을 논의한다. 부다페스트클럽 회장 어빈 라즐로 박사를 초대해 지구문명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미래를 다시 성찰하기 위한 의식혁명의 긴급성을 논한다.

대담 I - 9월 17일(금) 17:00-18:00	영상 상영	
	주제	지구문명의 위기와 의식혁명
	패널	어빈 라즐로 부다페스트클럽 설립자 겸 회장 신종식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대담 II 무한 성장 신화에 갇힌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운명과 그 전환 가능성

Are Homo Sapiens Destined to be Trapped in the Myth of Unlimited Growth  
or Do They Have the Potential to Transform Themselves?

미국의 대표적인 인구학자 폴 R. 엘리히 박사를 초대해 무한 성장 신화에 갇힌 호모사피엔스 종의 운명을 성찰한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해온 유구한 지구의 시간을 지나 지구의 능력(Earth's capacity)이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다. 현재 인류사회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 긴급하게 요청되는 지구적 지식과 실천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대담 II - 10월 15일(금) 10:30-11:50	주제	무한 성장 신화에 갇힌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운명과 그 전환 가능성
	패널	폴 R. 엘리히 스탠퍼드대학교 생명과학부 명예석좌교수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 대담 III 외계 지적 생명체의 태양계 방문, 지구(인)의 정체와 운명은 다시 쓰여질 것인가?

The Arrival of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in the Solar System:  
Will the Identity and Destiny of Earth be Rewritten?

하버드대 천문학과 교수 아비 로브와 함께 근대적 우주관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찾는다. 지구인 중심의 우주관을 비판하고 우주의 지적 생명체 존재의 가능성을 사유함으로써 인간 문명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근대 인간 지식의 체계와 이를 만들어온 우주관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전환 지식을 탐색한다.

<b>대담 III</b> — 10월 29일(금) 10:30-11:50	주제	외계 지적 생명체의 태양계 방문, 지구(인)의 정체와 운명은 다시 쓰여질 것인가?
	패널	아비 로브 하버드대학교 천문학과 Frank B. Baird Jr. 석좌교수 이형목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 대담 IV 기후변화 시대, 우리의 생존은 어떻게 가능할까

The Age of Climate Change: How Can We Survive the Crisis?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를 창립한 한스 요아힘 쉘른후버 박사를 초대해 기후변화 시대와 지구시스템의 임계점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후시스템의 대재앙 시나리오를 극복하고 미래 지구를 위해 현 인류사회가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묻고 그 해법을 탐색한다.

<b>대담 IV</b> — 11월 26일(금) 16:00-17:20	주제	기후변화시대, 우리의 생존은 어떻게 가능할까
	패널	한스 요아힘 쉘른후버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설립자 겸 초대 소장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인간과학스쿨 특임교수

## 대담의 마무리 전환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No Time to Lose: A Quest for Immediate Action for Planetary Crisis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미래 인류사회 건설을 향한 지구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인류와 지구생태계 전체가 공생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문명 설계를 제안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식을 촉구한다.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대응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삶의 전환을 선언한다.

대담의 마무리

–

12월 17일(금)

10:30–11:50

전환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 미래 인류사회를 향한 선언

## 유엔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제안한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조영식** Young-Seek Choue (1921-2012)

- 평화사상가, 평화운동가
- 경희대학교 설립자, 학교법인 경희학원 학원장
- '잘살기운동', '산림녹화운동', '세계평화운동', '밝은사회운동', '네오르네상스운동' 전개
- 1981년 유엔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 제안, 제36차 유엔총회에서 채택
- 1999년 서울 NGO 세계대회 개최
- 수상: 인문학 최고 영예의 상, 함마술트상, 유엔평화훈장, 아인슈타인 평화상, 비폭력을 위한 마하트마 간디상, 만해평화상, 대한민국 정부 국민훈장 무궁화장
- 저서: 「민주주의 자유론」(1948), 「문화세계의 창조」(1951), 「인류사회의 재건」(1975), 「오토피아」(1979)

미원은 세계평화사상가이자 운동가, 실천하는 지식인이자 교육자다. '평화와 창조'를 실현하는 지구 공동사회를 주창했다. 전쟁과 질병 없는 인류사회, 창조적 문화세계 건설을 역설하고 전인교육과 공적 실천을 강조했다. 평화로운 지구 공공 가치를 구현하는 세계평화운동을 전개했다. 국가와 민족의 틀을 넘어 인류 보편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농촌운동', '잘살기운동'을 전개했다. 성장과 팽창, 냉전의 시대를 비판하고 '자연보호운동', '밝은사회운동', '세계평화운동'을 펼쳤다. 1965년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설을 주도했다. 1981년 유엔이 제정·선포한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최초로 제안했다. 1987년 「세계평화대백과사전」을 발간하고, 1999년 서울 NGO 세계대회 (Seoul International NGO Conference)를 개최했다.

미원은 배타적 경쟁과 전쟁 사회를 넘어 인류 평화를 향한 전환문명 실현을 위해 헌신했다. 무한 성장의 경제 논리에 매몰되어 유한한 지구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대문명을 비판했다. 평화를 실현한 인류사회의 재건이 이상理想이 아니라 반드시 이뤄야 할 현실, 오토피아 (Oughtopia)라고 강조했다. 유엔 세계평화의 날 40주년을 맞은 2021년은 미원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 Peace BAR Festival 연혁

경희학원은 1981년 경희의 제안으로 제36차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1982년부터 매년 9월 세계평화의 날에 즈음해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해왔다. 올해로 40회를 맞는 기념행사의 연도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982-1990

1982	현대사회의 위기와 국제평화
1983	세계평화: 그것은 가능한가
1984	UN을 통한 세계평화
1985	UN: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986	국제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
1987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1980년대 후반의 한반도
1988	동북아 시대와 21세기의 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
1989	동서 갈등을 넘어선 평화: 1990년대 동북아의 안위와 세계평화
1990	동서 관계의 변화와 평화로운 신국제질서의 모색

### 1991-2000

1991	신국제질서: 21세기 탈이데올로기의 세계
1992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신국제질서
1993	동북아시아의 평화: 지역협력을 향하여
1994	도덕과 인간성 회복
1995	관용, 도덕과 인간성 회복
1996	21세기, 세계공동체를 향한 평화전략과 UN의 역할
1997	21세기의 비전과 현실: 동아시아의 역할
1998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의 비전: 현대문명을 넘어서
1999	21세기, 평화는 가능한가
2000	21세기의 글로벌 거버넌스

## 2001-2010

- 2001    문명 간 대화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 2002    Pax UN을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 2003    네오르네상스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 2004    평화를 위한 긴급 과제: 테러리즘의 극복
- 2005    이념 이후의 시대: 21세기 대안문명을 말한다
- 2006    21세기 보편의 재발견: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 2007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
- 2008    미래문명, 미래대학: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 2009    경희 평화 워크숍
- 2010    몸과 문명: 나는 몸이다

## 2011-2020

- 2011    몸과 재앙: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 2012    인간, 정치, 문명
- 2013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
- 2014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
- 2015    함께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 2016    지구문명의 미래: 실존혁명을 향하여
- 2017    전환의 시대: 촛불과 평화의 미래
- 2018    전환문명 시대의 한반도: 그 가치와 철학
- 2019    미래세대에게 미래는 있는가?
- 2020    긴급성의 시대, 정치 규범의 새 지평

